

도시만들기와 건축사의 역할

Urban Design and Architect's Role

이정형 /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by Lee Jung-Hyung

우리는 지난 반세기동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열심히 도시만들기를 계속해왔다. 아마 우리의 경제성장만큼이나 급격하게 그리고 효율적, 기능적, 경제적으로 도시만들기에 매진해온 것 같다. 여기에는 도시 계획, 토목, 조경, 건축 등 소위 물리적 환경계획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밤새워 고민하고 힘들게 작업하며, 도시환경, 도시건축 만듦에 참여해 온 결과이며, 오늘날 우리의 도시환경이 이만큼이나마 삶의 장소를 영위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반세기를 통해 만들어진 우리의 도시환경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되돌아 보면 무언가 석연치 않은 마음의 한구석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의 도시는 매력적인가? 걷고 즐길만한가? 도시의 수많은 건축물들은 도시미관의 충분한 주역이 되고 있는가?...한번쯤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진외국의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도시환경을 되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도시환경은 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우리의 도시만들기에 있어 이론적 근거가 된 '쇼닝' (지역지구제)으로 대표되는 근대도시계획수법은 도시를 기능적인 면에 중점을 두면서 효율적, 경제적으로 도시를 재편하고, 고도성장기 도시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장 적합한 도시기능의 수행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 자동차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도시기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으며 도시의 하천을 복개해 도로를 만들고 도심부의 요지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는 성장한국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개별필지에 계획되는 도시건축물은 도시의 공공성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개인의 사유재산 욕구분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도시건축물 입면 하나를 제대로 그려내기 위해 밤새 고민하고 수많은 스터디 모형을 만들어보는 건축사의 노력은 완성 후 건물입면 전체를 덮어버린 광고물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미 짜여진 도시골격 속에 주어진 대상지(필지)를 아무리 만지고 고민해도 넘쳐나는 가로주차장, 필지단위의 불합리한 각종 규제 속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시건축물을 통한 개인의 욕구분출의 극대화는 도시에 있어 공공성 결여라는 부메랑이 되어 각자의 목을 죄어준다. 공공성이 결여된 도시환경 속에서 도시건축은 더 이상의 매력을 가지기가 힘들게 된 것이다. 어쩌면 도시만들기에 있어 토목행정 논리 속에 개개의 도시건축은 제대로 자기목소리를 내기도 전에 질식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도 모르겠다. 필자는 이러한 모든 상황이 지금까지 필지단위의 도시건축 만들기에만 몰입한 건축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며,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사회적 책임이라 단언한다. 물론 우리의 건축교육 자체가 지나치게 개별건축물의 조형, 의장에만 치우쳐 있어 건축의 사회적 책임, 도시건축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면도 있을 것이다.

최근 청계천을 복원한다, 시청앞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 걷고싶은 거리를 만든다...등 이제나마 사람들이 걷고, 즐기며, 도시의 풍경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보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반가운 일이다.

또 한편으로는 도시계획법이 도시관리법으로 바뀌고, 종전의 도시설계제도와 상세계획제도를 통합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창설해 운용에 들어갔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각종 도시계획 관련조례는 더 이상의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좌시하지 않을 기세이며, 도시계획법 속에도 '경관지구'를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해 도시경관, 미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건축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만들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건축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인 것 같다. 교통전문가, 생태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나름대로의 전문가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물론 문화연대 등 몇몇 건축사그룹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보다 많은 건축인들의 도시만들기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건축사의 활동범위를 직접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등 상위계획 수립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건축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많은 내용이 건축사들에 의해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의 참여부진으로 개별건축행위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이 계획수립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자칫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공간의 3차원적인 도시관리수법이며, 종전처럼 도시공간을 평면적 기능적 관점에서 탈피해 각 지구가 가지는 공간적 물리적 특성을 평가해 지구의 명확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러한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수법으로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축사의 도시공간에 대한 풍부한 창조력과 공간계획의 능력이 요구되며, 이 제도의 결과물 역시 도시건축에 의해 평가되어지기 때문에 건축사의 참여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건축사가 얼마나 될까? 또 이 일이 건축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축사가 얼마나 될까?

한편 신도시개발, 강북뉴타운개발 등 도시의 경관변화와 직결되는 대규모도시개발의 경우 지금까지는 도시계획, 토목행정가 등에 의해 도시의 기본적인 골격이 짜여지면, 개별 블록을 단위로 건축사가 건축물을 설계하는 이원화된 시스템 속에서 도시건축물이 만들어져 왔다. 이는 도시와 건축의 괴리를 가져오며 통합된 도시경관의 조화를 형성하기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상위계획 속에서 형성된 도시공간의 틀 속에서 건축사의 역량 발휘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초기단계의 도시골격 형성단계부터 건축사의 참여를 통해 3차원적인 도시골격 만들기엔 건축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근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의 대규모주거단지계획에 있어 건축사들이 초기단계에 참여하는 소위 "MA(Master Architect)방식"의 도입, 건축사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출판단지 등은 이러한 변화의 선구적인 사례이며, 이미 선진외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검증된 수법이다. 또, 기성시가지의 개별건축행위에 대해 공공건축사(Public Architect)참여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결국, 도시건축 만들기는 몇 가지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규제, 유도되어질 수 없으며, 건축사의 도시만들기에 대한 주체의식 속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 실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축사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